

가슴에 아픔처럼 박힌 주님의 사랑(너무깨끗해서 죄인인 내가 받기엔)이 너무나 감사해..., 투박한 언어로 물 흐르듯이 그냥 넘쳐나는 마음을 그대로 정리하지 않고 고백한 주님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사랑하신 사랑.

죄인인 나를 그 상태로 그대로 사랑하셨고 동시에 그 죄인된 모습에서조차 완성된 나를 함께 보시고 사랑하신 가장 확실한 사랑.

그러기에 나의 죄된모습, 부끄러운 모습에 절대 무감각 해질수 없는 사랑.

그러기에 늘 그 사랑속에서 그 사랑을 누리면서도 동시에 주님의 그 사랑에 깨끗하게 반응하고 싶은 갈등과 아픔이 늘 공존하는 사랑.

그 이전의 어떤 삶보다도 더 갈등과 심장에 찢림이 빈번한 삶,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침범 할수없고 누구도 빼앗아 갈수없고 무엇하고도 타협할수없는 사랑과 평강이 주는 행복한 삶이 존재함을 우리에게 체험케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

완전한 완성을 보이신사랑.

이 사랑의 확증이, 체험이 없었으면 나는 내 삶의 길목에서 순간순간 만났던,나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이해하지 않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했거나 나를 힘들게 했었던 사람들에게 반응하느라고 나의지난 시간들은 내게 턱없이 부족했을것이다 .

그것으로 인해 단 하루도 나는 나를 살수 없었을것이다.

그리고 나는 일그러지고 상처난 인격으로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원망하며 비난하며 그리고 나를 변호하고 보호하기위한 핑계의 이유들을 덕지덕지 누더지처럼 겹겹이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것이다.

한겨울에 추위를 이기려고 이가 버글버글한 냄새나는 옷을 겹겹이 걸치고 있는 노숙자의 모습이 그런 나의 모습보다는 훨씬 아름다웠을지도 모를 나의 모습일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수없고,

인간의 주먹만한 심장으로서는 다느껴질수없는...

심장이 터질것같은 그 주님의 사랑의 체험이, 그 사랑의 시작이 있었기에 비난과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순간들이 지난 삶속에서 수없이 내게 와서 순간 아프고 순간 괴롭고 순간 휘청일수 있었지만 그것이 내사랑의 뿌리를 흔들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로하여금 기꺼이 내게 입혀질수 있었던 그 남루하고 더러운 옷을 과감하게 벗어 버릴수 있게했고 그분의 사랑앞에 다시한번 엎드리게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나의 얼굴을 들게하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사랑의  
송고하고 아름다운 화답이 이루어 지게하셨다.

내가 흔들리고 내가 힘들어할줄을...

내가 잠시 상처받을수밖에 없어서 잠시 나의 원망과 불평의 손가락이 그사람을  
향할수밖에 없었음을 이 미 아신것처럼 전혀 나를 책망하시지 않으시며 오히려  
나의 그 연약함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 강건해지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더큰사랑, 더 넉넉한 사랑의 깊이로 한걸음 더 나가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해주신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절대 나를 자책하는 그 죄책감으로 빠지게  
하시는것이 아니라 주님의 완전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오히려 나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시고 만들어가시는 그분의 영역으로 성큼 들여놓으시는 감당치못할  
사랑인것이다. 인간의 이성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표현과 감당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사랑인것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시작이며 완성이다.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너무나 깨끗한  
사랑이며 그 사랑의 시작과 끝이 인간의 척도로는 없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도  
인간의 척도로는 없다.

세상의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어떤 사랑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비교하고  
견주어보는 순간일지라도 그것은 죄가된다라고 말하고 싶을정도로 그사랑은  
설명도 형용도 인간의 언어로는 불완전하고 불가능하다.

너무나 깨끗해서 너무나 순결해서 너무나 완전해서 받기에 부담스러운 사랑  
그러면서도 동시에 쟁취해서 누리고 싶고 쟁취해서 누려야 하는 사랑...그렇게  
안하면 죄가 되는 사랑...

그 사랑만이 나를 살리고 나를 온전케하고 나를 하나님안에서 나되게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절규를 가진 절대적인 슬픔을 가진 명령같아서 .쟁취하고  
누려야하고 누리고 싶은 사랑 .

너무나 깨끗해서 너무나 순결해서 너무나 완전해서 받으면서 아리하게 아프고  
슬픈사랑... 그러면서 내가 채워지는 행복한 사랑,

인간의 사랑은 반드시 유한하지만 그리고 그 사랑의 강도 느낌은 시간에 따라 질도  
양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 20년을 절절하고 벅차게 가슴을  
흔들며 다가오는... 그래서 감당키 어려워 늘 나를 울게 하는 사랑인것이다.

내가 우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을 느끼는것 때문에 느껴질수밖에 없는 그 사랑앞에선 나의 불완전함과 한계와  
유한의 존재로 서있는 나를 느끼기 때문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받아서 누려야할 나의 존재의  
의미이고 내 호흡의 근원이고 내가 살아야할 이유이고 가치이고 목적이고 나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때문에 죄된 생각을 오래 품을수 없는것과 죄된 행위를  
지속할수없고 늘 떨쳐버리는 아름다운 수고가 지치질 않는것이다.

예수님을 닮기원하는 나는...

예수님처럼 순결하고 완전한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나는...

매일 그것때문에 갈등하고 때로는 지칠려고 하는 순간도 있지만 그 소원과 갈망이 있기에 나는 존재하고 그것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그것때문에 나는 아름다운 가치가 있음을 안다.

이 생명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내가 소원하고 갈망하는 예수님을 닮기원하는것을 결코 만족스럽게 다 이룰수 없을지모른다  
.아니이룰수없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절망이 아닌 나의 소망이되는것은...

내 그 사랑으로 달려왔음을 알기에...

그 사랑으로 내 심장을 뛰게 했던 그 순간들이 나의 삶이었었기에...

내가 바라고 갈망했던 주님께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미흡한 나를 봄에도 불구하고 내생명을 이끌었던 분명한 소망과 목적이 무엇이었음을 내가 알기에...

그분이 , 그주님이 나의 사랑이었음을 알기에.....